

# 책 읽기를 거부하는 교육의 문제

김인희

연세대 교수 · 교육학

콘라드 로렌츠가 「솔로몬의 반지」에 소개한 붕어·비둘기·사슴 같은 약한 동물들의 공격성과 공간과의 관계에 대해 관찰한 기록들은 마치 재미있는 동화로 착각할 만큼 흥미진진하다. 약한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공격용 무기의 성능이 보잘 것 없다. 그 대신에 재빨리 도망가는 재능 한가지씩은 제각기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상태 속에서라면 약한 동물들끼리의 싸움은 어느 한쪽이 도망치는 것으로 쉽게 끝난다. 이에 비해 한번의 공격으로 상대편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무기를 지닌 늑대나 곰 같은 맹수들이나 까마귀, 매같은 맹금류들의 경우 동족간의 싸움은 불리한 편이 저항을 포기하는 항복의 몸짓을 나타냄으로써 싸움이 끝난다. 그러니까 맹수류들 간에는 항복하는 적을 더이상 공격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본능처럼 지켜지는 셈이다. 만약 이 공격을 멈추는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모든 맹수·맹금류들은 동족간의 싸움으로 멸종했을 것이다.

문제는 도망칠 곳이 없는 공간안에 갇힌 상태에서 약한 동물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심각해진다. 공격을 멈추는 규칙을 본능으로 지니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망치는 재주 때문에 항복할 필요가 없었던 약한 동물들은 좁은 공간 안에서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어느 한편이 죽고 난 뒤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 맹수나 맹금류보다도 작고 약한 것들끼리의 싸움이 더욱 잔인해지는 것이다.

약한 것들 일수록 공간본능이 강해서 좁은 곳에 밀집해 있게 되면 쉽게 공격적으로 변한다. 과일상태가 일정수준을 넘게 되면 사슴이나 생쥐 같은 경우 내분비선을 비롯한 내장기관에 이상이 생기고 출산율이 저하될 뿐 아니라 신경이 예민해지고 난폭해지며 수명이 단축된다는 동물생태학자들의 보고를 근거로 E.T. 홀은 「숨겨진 차원」에서 어쩌면 인구가 과밀한 대도시에서일수록 충동적 강력범죄 발생율이 높은 것도 이러한 동물들의 생태반응과 비슷한 증상일지 모른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면 우리네 경우는 어떠한가. 거의 모든 국민들이 태어난 이후 5, 6년만 지나고 나면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 속에서 하루 온종일 석차와 점수경쟁이라는 긴장과 갈등에 시달리며 살기를 무려 12년이나 계속해야 한다. 게다가 나이를 먹고 해를 거듭해 갈수록 점점 익숙해지고 면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긴장과 불안이 점점 더 가중될 수밖에 없게끔 전체교육체제가 조직되어 있다. 학교교육이 그렇게 숨막히게 하는 대신에 학교 밖에서라도 마음 놓고 숨을 크게 내어 쉴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학교 밖 어디에서건 더 답답하고 무자비하게 심신을 조여들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이다. 혼자서 방안에 틀어박혀 책속에 빠져들 수라도 있다면 혹 현실에서 못푼 긴장을 상상속에서라도 풀어보고 남모르는 나만의 정신적 유희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성적경쟁에서 뒤떨어질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교과서가 아닌 소설책이나 시집을 읽을 엄두도 내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도대체 책 몇장을 계속 읽을 능력 같은 것은 학업성적 경쟁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니 읽는 연습을 해 본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요즘 우리사회에서는 학교 맛을 본 국민 모두가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짜증과 불만에 가득찬 얼굴표정을 한 채로 자제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는 공격본능을 발휘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들 있는 것이나 아닌가 의심될 정도다. 과일상태에서의 학교교육보다는 차라리 집과 도서관에서 시집이나 소설책을 읽거나 연극구경 다니는 편이 훨씬 좋은 교육이 될성 싶다. 감옥만이 범죄학교는 아니다. 책읽기를 거부하는 우리네 제도교육체제 자체가 예비 폭력범 사육장이나 진배없다.

뉴스 2 책이 있는 10월의 문화행사  
다섯해만의 흥겨운 책잔치 한마당·외

리포트 4 후기산업사회 출판의 위상—김홍식  
뉴미디어와 종이문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5 전환기 대학출판의 위상과 진로—이광래  
2천년대의 대학출판을 위한 제언 열가지

서평 6 바이세델 「철학의 뒤안길」—한전숙  
언론연구회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정대수

7 박종기 「高麗時代部曲制研究」—채웅식  
한석희 「일제의 종교침략사」—윤경로

8 존 브르그스 외 「혼돈의 과학」—구현모  
브랜드웨이인 「과학재능의 교육」—최돈형

9 농어촌사회연 「수입개방과 한국농업」—황수철  
한명희 외 「韓國傳統音樂論究」—최현

10 미술사학연구회 「미술사학 II」—권영필  
박용숙 「韓國美術의 起源」—허영환

11 김준오 「한국현대장르비평론」—김현자  
한완상 「돌물목에 서서」—장을병

확대서평 12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길—박철화  
이남호 평론집 「문학의 僞足」 전 2권

문학화제 13 21세기를 향한 현대시의 고전—추원훈  
올 노벨문학상 수상자 옥타비오 파스의 작품세계

출판화제 14 동독의 소멸과 동독텍스트의 생존  
통독 이후의 동독책은 이제 무슨 의미를 갖는가

화제의 책 15 국내외 정보 총망라한 「대학백과」

참관기 16 이 엄청난 책의 숲을 거니는 마음—원재훈  
90 서울도서전을 둘러보고

18 축제처럼 치러지는 국제출판시장—신문종  
통독의 현장에서 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이 책 그 사람 20 「살아있는 세금」 펄먼 이상목씨  
「우리아이 왜 이럴까」 펄먼 김경희 교수  
21 「편집레이아웃」 펄먼 금창연씨  
「산경표」 해설서 낸 박용수씨

책이있는 모임 22 간행물윤리상 수상 YMCA 강남지회 출판물모니터클럽

서점가순례 23 독특한 변천사 지닌 대전 「문경서적」

세계의 출판 24 달라이 라마 자서전 「망명지에서의 자유」·외

독자서평 26 전선화/윤주연/송희송/권경희

28 새로운 시집

29 어린이책 들춰보기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자료집/이색출판

40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48 프리즘 (송은범)/독서퀴즈/정기구독안내